지금 이 사람

사회에 기여하는 인문학, 그리고 국문학

전남대학교 윤평현 교수를 만나다

답변자: 윤평현(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권창섭(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때: 2013. 11. 18.
곳: 전남대학교 인문관 윤평현 교수 연구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20년 가까이 인문학자와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을 괴롭히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강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편수의 논문을 생산하였는가 하는 양적 기준으로 연구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요즘의 상황은 이러한 '위기'라는 말을 더욱 절감케 한다.

인문학,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어와 국문을 공부하는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 ≪새국어생활≫ 겨울호에서는 전남대학교 윤평현 교수를 만나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퇴임을 앞두

시고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퇴임 후의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윤평현 퇴임이 이제 한 2년 반 남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정리는 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평현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시간이 좀 있을 때 퇴임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고 있는 참입니다.

권창섭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윤평현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지금까지의 제 삶이 집, 학교, 연구실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공황 상태만 생기지 않는다면 게으르나마 지금처럼 하던 일, 책 보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조용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건 가족이 동의해 주었을 때 가능하겠지요.

권창섭 조용히 지내신다는 건?

윤평현 시골에 가서 살면 어떨까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생각뿐이지요.

권창섭 재직 기간 동안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윤평현 사회에 대한 관심은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참여는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오래된 미래≫[1]란

---

1)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언어 연구를 위해 찾아 간 인도 북부의 작은 마을 라다크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책. 생태적 지혜를 통해 자족적인 삶의 구조를 유지해 온 라다크가 서구식 개발과 자본주의의 유입에 의해 환경과 사회 구조가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이후 국제생태문화협회(ISEC)와 라다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하며 경제 개발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적인 규모의 경제 체제를 연구하고 ≪허울뿐인 세계화≫, ≪식량 경제를 집으로 가져오면서≫ 등의 책들도 저술하였다.

책을 신문에서 "한 여류 언어학자의……"와 같은 구절로 소개하고 있기에 읽었었죠. 지금도 노르베리호지 선생은 세계적으로 환경 생태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제게 지성이란 말을 붙이기는 과합니다만, 참여하는 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었지요.

권창섭 사회의 어떤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가요?

윤평현 정치, 경제 등에 대해 특별한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로서의 삶,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에 가서 살고픈 마음도 있는데 실천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수에 들어가 2년 2개월 2일간 자연 속에서 홀로 지냈듯이[2] 그러고픈 마음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생각이 복잡하네요. 퇴임 이후의 일들이라…….

권창섭 학문적으로는 특별히 욕심은 없으신지요?

윤평현 저야 뭐 논문 한두 편에 연연할 입장은 아니니까…….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해 잘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개인이 하기는 힘든 일이겠지만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한국어 내에서 어떻게 체계를 이루고 있나, 또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또 동의어, 반의어, 상하위어들을 잘 체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의어, 동의어 사전들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사전에

---

2) 미국의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5년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문명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홀로 자급자족하며 2년 2개월 2일 동안 생활한다. 그러한 생활의 결과물로서 나온 책이 바로 ≪월든≫인데, 이 책은 전 세계인에게 널리 읽히며 인간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였다.

나와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발전한 정도의 것이지요. 동의어, 반의어 이론에 입각한 사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나온 의성어 · 의태어 사전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집단으로 해야 할 일이지요.

권창섭 지원도 필요할 테고요.

윤평현 네. 지원도 필요하죠. 이런 작업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한 개인이 먼저 차분히 시작해야 할 일이죠. 제가 시작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천성이 너무 게을러서…….(웃음)

언어는 우리 생각만큼 체계적이지 않아

권창섭 예전 이야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오시고 또 국어학에 뜻을 품게 되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윤평현 대학은 처음에 자연 계열, 건축 쪽으로 지원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 난 아무래도 인문계열이 적성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중고서점에서 아주 얇은 책을 하나 구했는데, ≪학교문법 통일안 해설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문법 통일안≫이 1963년에 나왔는데 그에 대해 처음으로 나왔던 해설서인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해를 하진 못했겠지만 참 재밌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국어 선생님께서 이 책을 보시더니 어디서 이런 책을 구해서 읽었느냐고 하시며 책을 훑어보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책인데 이런 책도 읽는구나 하시며 격려도 해 주시고요. 이런 조그마한 것이 계기가 된 셈이지요.

권창섭 그런데 왜 처음엔 자연 계열로 대학 지원을 하셨나요?

윤평현 하하. 국어는 좋아했는데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어떻게 진출할까 생각해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 진학에 실패해 보니 아, 난 아무래도 국어가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국문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권창섭 문학 쪽에는 흥미가 없으셨나요?

윤평현 없긴요. 제가 문학에도 흥미가 좀 있었어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무렵인가 대학 신문에 평론이 당선이 되어서 나에게 이런 재주도 있나 생각하게 되었죠. 선생님들도 그에 대해 격려도 해 주시고. 그걸 또 소재로 해서 서울의 모 신문에 신춘문예를 보냈는데 최종심까지 올라갔어요. 결국 낙선을 하긴 했는데 그때 큰 동요를 느꼈었죠. 그래도 어쨌든 문법 쪽으로 계속 흥미를 가지긴 했죠.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최현배 선생님의 ≪우리말본≫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들었지만 처음 보게 된 것이죠. 방대하기도 방대하고 어렵기도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아, 문법이란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학에도 흥미가 있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며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면서는 결국 국어학 쪽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권창섭 국어학 중에서도 그럼 통사, 의미론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문학 쪽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와도 연관이 될까요?

윤평현 1970년대 후반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 다 그랬듯이 전통문법, 구조주의 문법을 먼저 공부하고 대학원 들어와서야 촘스키를 접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번역서들을 읽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죠. 원래는 통사론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음운, 형태, 통사와 같은 것이 형식이라면 그 형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연구하

는 것이 의미론인데 잠재적으로는 제가 이 의미를 연구하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긴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촘스키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 문법을 이해하면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논문을 쓰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늘 있었어요. 촘스키의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쫓기듯이 논문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회의는 어떻게 보면 촘스키와 같은 식의 체계적인 설명,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언어가 그렇게 체계적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도 비롯된 것이지요.

또 당시 저도 생성의미론류의 논문을 쓰면서 그 당시 한국어학계에서 생성의미론이란 것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논문들이 "ㅇㅇ의 의미", "△△의 의미"로만 쓰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접속 어미와 연결 어미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학위도 그쪽으로 하게 되었고요.

권창섭 당시 의미론 연구가 활발한 편이었나요?

윤평현 1970년대에 의미론으로 박사 학위 논문이 몇 편 나오고, 1980년대는 제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아주 풍부하게 나왔고요. 저도 그런 한 흐름 속에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미라는 것은 그렇게 규칙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로운 생각들이 배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권 선생이 질문한 문학 쪽의 흥미와 의미론이라는 전공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의미론 쪽으로 기울게 되었으니까요.

‘위기’를 타개하려는 인문학, 스스로의 노력 필요

권창섭 전국 인문대학장단 협의회 대표를 맡으셨는데요, 한창 그때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윤평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마 30~40년 전에도, 굳이 위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인문학 연구가 활발하다거나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된 것은 1996년일 겁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회의가 제주대학교에서 있었는데, 그때 ‘인문학의 위기’라고 해서 인문학 선언과 비슷하게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호소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6년에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자유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가 강화되는 시기라서 상품 가치가 높은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인문학의 위치가 어떠한가 생각해 봤을 때 다시 자연스레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권창섭 어떤 쪽에서 제일 먼저 그 말을 사용한 건가요?

윤평현 먼저 출판·문화 계통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였죠. 인문학 관련 서적들이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다 보니까요. 이어 고려대학교 문과대 교수들이 인문학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하며 대학 교수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던 한국학술진흥재단[3]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방안을 찾다가 학장단에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

3) 이후 2009년에 과학기술부 산하 3개 단체와 통합되어 현(現) 한국연구재단이 된다.

그때 제가 마침 전국 인문대학장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하여서 사회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차원의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른바 인문학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지요. 마침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가 바로 위기라는 단어죠. 인문학의 위기……. 위기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권창섭 왜 그런가요?

윤평현 사실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 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위기라고 말해 버리면 학생들이 그 학문 분야에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인문학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겠냐를 이야기해야지 사회만을 탓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로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위기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 것 같아요. 신문사들에다 위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도 했지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권창섭 그러한 노력들이 가져온 성과 같은 것이 있을까요?

윤평현 사회적으로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정부에서도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건의를 하기도 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었고요. 그 당시가 노무현 정권 때인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케이 21(BK 21, Brain Korea 21) 사업과 에이치케이(HK)사업 같은 것들이었죠.

권창섭 인문학의 진흥이나 발전이 금전적 지원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윤평현 물론 아니죠. 특히 인문학은 금전적인 지원만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학문의 성과가 당장 어떤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마치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같은 것이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땅 위의 이런저런 만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 기여를 한다, 이런 것이 인문학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문학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제는 보다 역동적으로 사회 참여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창섭 인문학의 본령이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의 표면적인 모습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있습니까?

윤평현 요즘 많은 젊은 인문학자, 특히 철학자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 인문학을 강조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죠. 물론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더욱 필요하겠지요. 지금 정부에서 창조 경제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이 올해 들어 큰 화두가 되었었는데, 많은 것들이 창조의 밑바탕을 이루겠지만 인문학 역시 밑바탕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기업 중심의 생산 체계 측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문학도 보다 능동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지 가만히만 있으면 인문학에 대한 호출이 줄어들겠죠. 즉, 상아탑에만 갇혀 있는 그런 인문학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창섭 그런 상황, 그런 측면에서 국어국문학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란 무엇이 있을까요?

윤평현 지금 국문과의 인기 영역이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인데 이런 새로운 영역의 역할이 큽니다. 단순한 글쓰기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기본 동력이 되면서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와 같은 사고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권창섭 문화콘텐츠학과가 여러 대학에서 생겨나는 것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윤평현 네. 그렇겠지요.

권창섭 전남대학교에서 그러한 방향 속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윤평현 현재로선 대학 내부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문과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사회 참여적인 교과목도 생각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특성화 사업도 구상은 하고 있지만 다른 곳, 그리고 대학 내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국립대 국어국문학과의 역할

권창섭 자연스럽게 그럼 전남대학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 오래 재직하시면서 후학 양성과 학과 발전에 애쓰셨는데요.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국어국문학과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나 역할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윤평현 국어국문학과뿐 아니라 다른 인문학의 기본이 되는 학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요새 인문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아무래도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인문학

이 적정하게 발전을 하긴 해야 할 텐데 국립대가 그러한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은 분명 있겠죠. 정원이 조금 많다는 느낌이 있는데 국립대는 학생의 정원이나 지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덜하긴 합니다. 학문의 균형 발전에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문과가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적이긴 하지요. 지방대뿐 아니라 서울의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회 참여적인 방향으로 국어국문학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길을 찾아야 할 텐데 국어국문학과는 과거의 교과 과정을 깨트리는 데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국문과 스스로도 자체적인 반성이 필요하겠지요.

권창섭 전남대학교에서도 도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지역의 방언을 채록하고 또 연구하는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 편 아닙니까?

윤평현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지요. 국어원에서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학생들의 공급이 한정적입니다. 또 그런 작업을 하는 교수들의 말씀으로는 훈련된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대학에서 우리들이 잘못한 책임도 있겠지요. 방언을 채취한다면 전문성을 길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텐데 취약점이 있지요. 학생들이 힘든 일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고요.

권창섭 중국의 푸단대학과는 자매 학교, 자매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평현 우리 국문과로서는 아주 좋은 유대인데, 역사를 보면 전남대학교와 푸단대학 교수들이 예전부터 가져온 관계가 있었어요. 강은국, 강보희, 김영태 교수 등이 전에는 연변대학에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연변대학에서 계실 때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남대학교에 와서 순차적으로 지내시며 유대가 시작되었고, 그러다 푸단대학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셨죠. 그렇게 된 인연이 지금까지 20년가량 이어져 오고 자매결연도 맺으며 교수들, 학생들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요.

권창섭 그럼 중국 내의 한국어 연구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윤평현 지금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중국에서 학문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가 이뤄지는 대학도 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연구가 이뤄지는 곳으로는, 연변대학이 역사가 깊고, 북경의 중화민족대학, 상해의 푸단대학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곳에서 깊이 있는 학문을 하는 학자도 배출되었으면 해요.

권창섭 지금은 아직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만 연구가 되고 있나요?

윤평현 네. 아직은 한국어 교육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학은 중국 내에 손가락으로 세기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많다는 점은 좋은데, 나중에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서기도 해서 앞으로 혼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제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관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중심의 실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권창섭 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셨는데요. 특히 국어국문학회와 의미론학회는 회장도 맡으셨었습니다.

윤평현 구닥다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대학 4학년 때 처음으로 학회라는 것에 가 보게 되었어요. 그전에 학교 수업에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것아"를 [이거샤]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 호남 사람들은 [이거다]라 발음을 한다, 즉, 호격 조사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아, 정말 그런데 생각을 못 해 봤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글을 읽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학회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팸플릿을 봤는데 그 선생님께서 여러 지역의 호격 조사의 발음을 조사하셔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볍게 흥분을 느꼈어요. 제가 우연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발표도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공부인가하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께서도 자네가 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다고도 하시고……. 대학원에 가서도 학회 활동하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새로운 주제의 발표들을 듣는 것도 재밌었지만 책으로만 접하던 선생님들을 실제로 접하는 것도 즐거움이었지요.

권창섭 그때는 주로 어떤 학회에 가셨는지요?

윤평현 제가 처음 학회에 참여했던 것은 한국언어문학회인데 1963년에 창립된 학회입니다. 당시 학회는 전국 규모인, 1952년에 만들어진 국어국문학회, 그리고 대구 중심의 한국어문학회, 그리고 호남권 중심의 한국언어문학회, 이 셋이 종합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언어문학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참여했던 학회가 국어학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도 듣고 나누고, 2박 3일 합숙하듯이 공부도 하고 선생님들도 모시고 했던 것이 참 좋은 기억들로 남습니다.

권창섭 의미론학회는 지금 회장이시죠?

윤평현 의미론학회는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금 회장을 맡게 되었죠.

권창섭 국어국문학회 대표 이사도 맡으셨습니다.

윤평현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원래는 선거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도 나오고 해서 지방 대학에서 국어학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연락이 와서 지방 대학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대표 이사를 맡게 되었죠. 사실 그 당시에 한국언어문학회 회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레 국어국문학회 대표 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접했던 학회라 각별한 정이 있는 학회의 회장을 맡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뭐 회장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국어국문학회 대표를 맡았고 의미론 학회도 회장을 맡게 되었죠. 그것도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권창섭 요즘 학회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 할 것은 없는지요?

윤평현 우선 학회가 너무 난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학회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죠. 전문 분야별로 나뉘게 되니까 그 전문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자는 취지는 환영하고 저도 찬성하는 일이지요. 그런 것들과는 달리 그저 지역, 분파 등에 의해 학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실적 위주만으로 교수들을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 학회지가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양적으로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권창섭 보다 뜸을 들인 연구들은…….

윤평현 그렇죠. 양 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 차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연구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삭혀서 논문을 쓰기보다는 '내가 1년에 논문을 몇 편 써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논문을 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들이 양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중에 가치 있는 논문이 얼마나 될까 하는 아쉬움도 들지요. 차차 분파적인 학회가 좀 통합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회도 보다 수준 높은 집단이 되고 보다 나은 연구 실적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창섭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겠지요.

윤평현 네. 여러 교육 기관 및 평가 기관이 양 위주의 평가를 과감하게 벗어나야지요. 앞선 석학들이 양으로 업적들을 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평가에 연연할 상황이 아니니까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런저런 저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되니까 또 게을러 가지고…….(웃음)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무

권창섭 학회 외에 이제 국어학의 현황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같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윤평현 서구의 이론들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우린 국어학의 역사가 짧다 보니, 그러한 이론들이 초창기에 한꺼번에 들어온 듯한 감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제의 서구 이론이 오늘 바로 들어와서 적용되기도

하지요. 이론이 한국에 와서 충분히 삭여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론이 새로 들어와서 주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본의 아니게 자신의 중심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지요. 또 그쪽에 기웃대게 되고, 앞선 이론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다른 이론도 해야 하고……. 이론이 혼재되게 되죠. 이론이란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통해 국어학을 잘 정제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 온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국어학 현실에 맞는 이론들이 한국에 정착되지를 못하고, 이미 흐름이 지나간 이론이라고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의미론에서는 특별히 한국어에 맞는 이론 자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유럽 등 서구 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어에 적용을 해 본 것들인데, 적용을 넘어서 한국어의 상황에 맞는 한국 이론이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어학에서 의미론의 역사가 아직 짧은 탓도 있지만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약 2～3개월 전에 한 학술 단체에서 해방 전의 의미 연구에 대해 정리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전부터 그런 작업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찾질 못했어요.

권창섭 해방 전에는요?

윤평현 네.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성리학에서 '이'와 '기'의 대립관계를 설정한 것도 굳이 '의미'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세진의 ≪훈몽자회≫나 여러 천자문에서 '훈'도 '의미'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암 박지원의 ≪아언각비≫도 언어의 의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모두 '의미'라는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하면 주시경의 '늣씨' 같은 것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종합하면 해방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론의 역사가 한국어학에서는 대단히 짧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질문이 뭐였지요? 국어학 전반에 관한 것이었나요?

권창섭 네. 조금 넓은 질문이긴 하지요?

윤평현 촘스키 언어학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레 이것이 언어학 발전에는 큰 기여를 했었죠. 반성적으로 새로운 국어학 모델도 생각해 보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기능주의 문법도 들어오고 화용론 이론과 같이 실용 중심의 언어학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국어 연구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미론에서도 담화와 발화 중심의 대화 분석 등이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더 많다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연구자들은 말뭉치라든가 현장 언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작 40년 전 차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던 글들의 문장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글들의 문장들이 매우 다르거든요? 그런데 말뭉치라는 것은 현재의 현실 언어보다도 과거의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잘 취사선택해서 자료를 볼 필요가 있겠지요.

권창섭 후학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윤평현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한데, 앞선 연구 주제를 따라간다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독창적이지 못하고. 물론 주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요즘은 젊은 연구자들, 특히 또 의미론 연구자들을 보면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어 대단히 반

갑지요. '아,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은 빠뜨리고 이야기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 분야를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우리 언어의 더 많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겠지요. 새로운 주제를 더욱 개척해 나가는 것이 연구자들의 의무겠지요. 후학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권창섭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